



전기만 해도 기부 쉬워진 이웃 사랑 고마워 '착한 앱'

나무 기증·유기동물 후원에 나눔쇼핑몰까지 빅워크·트리플래닛·파피콤 등 소셜기부 활발 후원기업은 이미지 제고·홍보 효과 '일석이조'

#. 광주시 광산구 도산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손경희(여·32) 순경은 순찰을 나가기 전 꼭 켜놓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기부할 수 있는 앱 '빅워크'(Bigwalk)다.

그녀는 "지난해 첫 임명을 받아 아직은 매달 정기적인 기부는 부담스럽고, 적은 금액을 기부하자니 또 마음이 불편했다"며 "곧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걷는 것만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앱으로 부족한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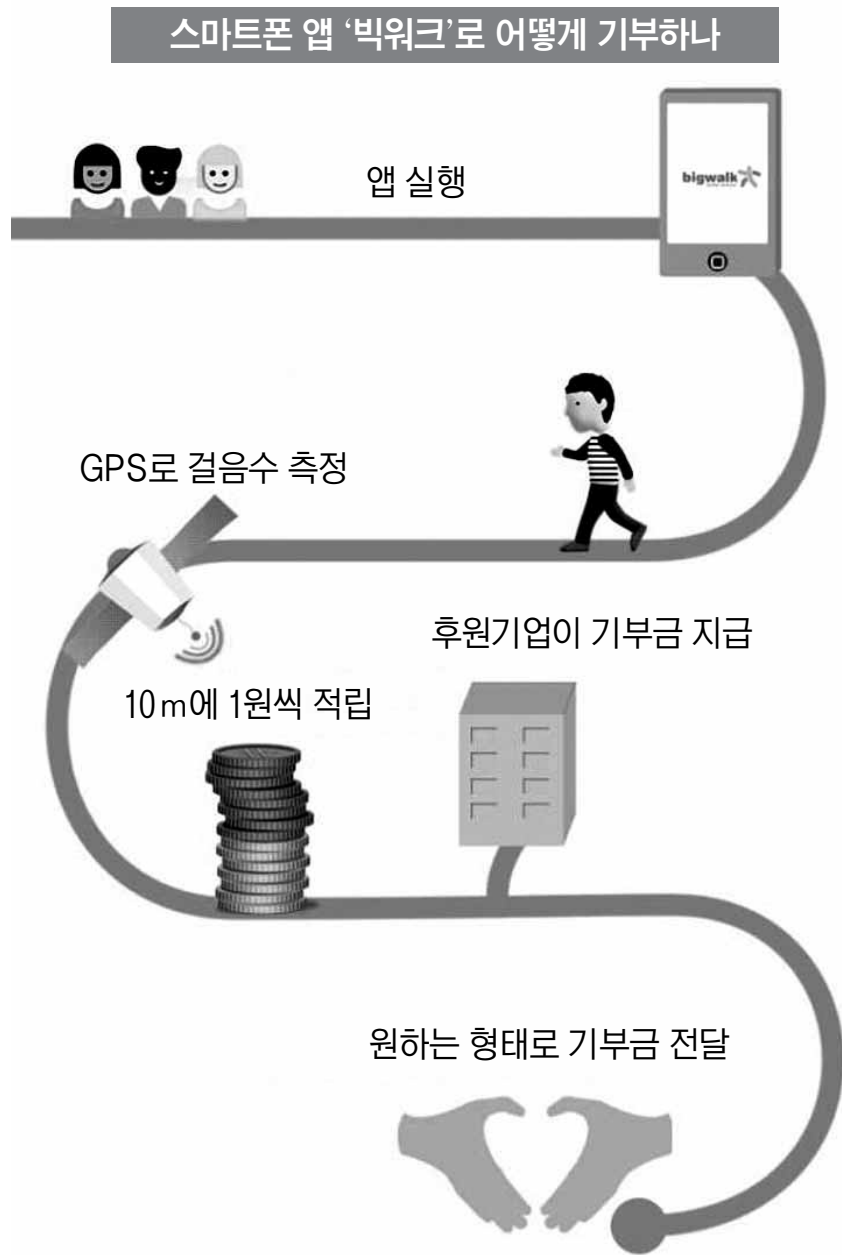
손 순경은 동료 경찰관에게도 이 앱을 전파하고 있다. 여차피 해야 할 일인 도보 순찰을 하면서 기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한다.

마음은 있어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부를 망설였던 사람들도 재밌게 기부할 수 있는 '피네이션'이 떠오르면서 '나눔'과 '공유'가 최신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피네이션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금전적인 지출이 없어도 기부가 가능한 이색적인 방식을 말한다.

굳이 스마트폰 앱을 깔아야 할 필요도 없다. 해당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 일상에서도 쉽게 나눔활동을 할 수 있는 소셜기부(Social Donation)가 대세다.

앞서 '빅워크'라는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 받은 뒤 실행, '스타트'(Start) 버튼만 누르고 걸으면 자동으로 기부가 된다. 이용자들은 기부금액과 내역은 물론, 운동량과 탄소배출량 등도 확인할 수 있어 건강관리 앱으로도 유용하다.

스마트폰의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 GPS로 측정된 거리 10m당 1NOON(가상의 포인트)이 쌓인다. 기업이나 후원단체가 포인트를 추후 현금으로 바꿔 지정된 곳에 기부하는 방식인데, 가상포인트인 'NOON'은 후원자마다 환산되는 액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1원 정도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걷는 속도(15km



/h)를 초과하면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게임을 하면 실제 사막화를 막기 위한 나무를 기증할 수 있는 게임도 있다. '트리플래닛'(Tree Planet)은 '나무'라는 특색있는 기부예

제임을 접목시켰다. 후원기업의 아이콘으로 만든 아이템을 사용할 때마다 기업에서 후원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기부가 이뤄지는데, 어린 나무를 키우는 '트리플래닛'과 오묘물로부터 나무를 지켜내는 '트리플레

3' 버전도 있다.

유기동물을 후원하는 기부형 게임 앱으로 '파피콤, 우당탕탕 보호소'가 대표적이다. 게임 속 가상현실에 있는 유기동물센터를 운영하면서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게임이다. 실제 존재하는 품종의 개와 고양이를 유기동물센터에서 보살핀 뒤 많은 입양을 성사시키는 게 목표다.

게임 속 유기동물에게 사료를 줄 때마다 후원 포인트가 쌓이는데, 게임에서 모인 포인트는 현실 속 '진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사료로 기부된다.

게임에서 많은 동물을 보살피고, 많은 나무를 키울수록 진짜 유기동물을 더 많이 구하고 사막화를 막기 위한 나무를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등 가상과 현실을 잇는 모바일 앱이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자연스레 늘어난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을 접목한 기부인 굿네이버스의 '나눔 쇼핑몰'(http://www.givestore.kr/)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동시에 기부가 이뤄지는 곳이다. 일반 의류·문구·도서·커피원두 등 상품도 다양해, 일반적인 상품과 똑같다. 판매수익금 전액은 국·내외 빈곤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인다.

하루종일 손에서 놓질 않는 스마트폰, 10분만 내려둔다면 아프리카 한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면서도 기부로 이어지는 유니세프의 '탭' 캠페인이다.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탭 프로젝트(http://tap.unicefusa.org/)에 접속한 뒤 비긴(begin)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바닥에 책상 등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끝, 이렇게 10분만 참으면 물 부족 국가의 어린이가 하루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을 선물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앱의 확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어렵게만 느껴왔던 기부를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국제 과학 토론 '제1회 필 사이언스 포럼'

광주과학기술·광주일보 주최



실레 교수

와타나베 교수

광주일보와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신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필 사이언스 포럼'이 오는 24일 광주과학기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PCST) 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있는 캐나다 퀘벡대학교 버나드 실레 교수와 일본 과학커뮤니케이터 협회장인 일본 츠쿠바대학교 마사타카 와타나베 교수가 방한해 김신영 관장 등과 토론회를 갖는다.

이들은 과학문화 활동가 모임 구축 방안과 광주·전남지역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광주과학기술관의 역할 등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오후 1시부터는 과학관 1층 상강

홀에서 버나드 실레 교수의 '북미지역의 과학관과 과학문화'와, 마사타카 와타나베 교수의 '과학기술커뮤니케이터의 역할'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또 강의가 끝난 뒤에는 조선대 박영신 교수의 사회로 제주를 포함한 호남지역 26개 과학관 종사자와 지역의 대학교수, 초·중·고교 과학교사, 시민 등이 함께 '열린 토론'을 펼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호남 ICT 컨퍼런스'

28일 김대중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소통, 공감, 창조'를 주제로 '2015 호남정보통신기술(ICT)융합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시,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호남권ICT·SW기업 연합체와 관련기관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1트레(ICT미래기술의 이슈 및 전망) ▲2트레(SW융합기술 사례 및 발전전망) ▲3트레(스마트콘텐츠 비즈

니스)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ICT기술의 이슈인 드론과 클라우드, SW융합기술의 자동차 자율주행과 농업의 스마트팜 사례, 모바일게임의 성공 비법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ICT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로 진행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현대자동차, ㈜넥스, ㈜웹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급변하고 있는 ICT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교류 등 호남지역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北, AASSA 가입 재도전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지난해 서류 미비로 탈락

북한이 아시아 국가들의 과학한림원 모임인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 회원이 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2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에 따르면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는 전날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이사회를 열고 북한국가과학원(원)이 제출한 신입 회원 신청서류를 심사한 뒤 '승인' 결정을 내렸다.

AASSA는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 아시아 지역 30개국, 34개 한림원·과학원을 회원으로 둔 국

제 기구로, 북한국가과학원은 지난해 신입회원 신청 서류를 냈으나, 서류 미비로 이사회 단계에서 탈락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북한국가과학원이 AASSA의 신규 회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포함한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최종 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영문 약관을 빼놓아 떨어졌었다"며 "올해는 이사회 가입심사를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오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시 삼영동〉

☆ 나주 혁신도시 10분 !!
(토 205평, 건135평)
영강고교/영강초교 정문 앞

1층 6칸(올림대)
2층 2칸(사무실,주택가능)

(보2천, 용1억2천 - 월수익 200만)

매가 2억9천

8층상가 건물 매매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신축, 올 최신시설

1층 (상가, 120평)
2~7층 (오피스텔 룸 54개)
8층 (주택 겸 사무실)

(향후 60억 가치 있음)

매가 30억

법률경매

-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8억3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용 54개~8층, 주택겸사무실)
- 서구 농성동 (토86평, 건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K지사 부근
- 북구 각화동 (토 337평, 건510평)
감정가 22억3천 → 최저가 15억6천
→ 1층 (음식점및 영업소) 2층 (학원및사무실)
3층 (사무실 등)
- 서구 치평동 (토 3평, 건 90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10층 중 7층 (상무지구 변화가 위치)
유흥지점 운영자 추천
- 북구 유동 (토240평, 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17억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매교육

경매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수익성 상가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7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3천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 용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 용60만) 임대완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6평) 상가입점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용25만) → 매가 3천8백만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12개-투룸12개, 원룸6개)
(보4천5백, 용720만) → 매가 7억8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상무지구 정면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 매가 1억3천만
(보1천, 용60만) 임대완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5백, 용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옆
(용4천) (보5백, 용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용2천) (보3백, 용33만) → 매가 4천5백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회 1번출구 3분
(용1천) (보2백, 용30만) → 매가 3천6백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시설, 통건물)

-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면적 122평, 건423평) → 매가 28억
-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터
(월수익 1,000만 - 보2억, 용6억) → 매가 20억
- 첨단지구 3층 상가 (월수익 980만)
(보1억, 용3억) → 매가 13억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억) (10억~100억)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